

금호그룹, 워크아웃 개시 결정

채권단 75% 이상 찬성 ... 금감원은 지분 불공정거래 조사

금호산업에 대한 워크아웃이 개시됐다.

채권단은 1월6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갖고 전체 75% 이상 찬성을 거쳐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했다.

채권단은 약 3개월간 금호산업에 대한 채권행사를 유예하며 실사를 거쳐 금호산업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하고 금호산업과 이행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금호산업은 자구계획으로 비업무용 자산 매각과 각종 비용절감 방안 등을 포함하는 고강도의 구조조정 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채권단은 신규 자금지원 등을 통해 금호산업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채권단회의에서는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아시아나항공 주식 33.5% 가운데 12.7%(2227만주)를 주당 4275원(952억원)에 금호석유화학에 넘긴 점이 문제가 됐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일부 채권금융기관은 금호산업의 핵심 자산이 워크아웃 직전에 금호석유화학에 넘어가 금호산업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원상회복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분 매각 당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고 시가에 넘긴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와는 별도로 추후 산업은행과 금호산업과 협의해 아시아나 주식이 금호산업으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지분 거래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으나 채권단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은 “우리은행의 주장처럼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금호산업으로 되돌려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우리은행과 금호그룹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해 채권단간 논쟁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1/06>